

근대중국어시기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 고찰*

崔宰榮 · 安妍珍**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
 - 1. 不欲
 - 2. 不要
 - 3. 不待
 - 4. 不想
 - III.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현대 중국어의 조동사에는 능력을 나타내는 ‘能, 會’, 의지를 나타내는 ‘要’, 의무를 나타내는 ‘得, 要, 應該’, 추측을 나타내는 ‘得, 要, 應該, 會’ 등이 있는데 동일한 의미장(語義場, semantic field)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조동사들은 서로 다른 세부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부정형식은 ‘不能, 不會’, ‘不想’, ‘不應該, 不必/不用’, ‘不會’ 등으로 다른 동사들과는 달리 단순히 부정부사 ‘不’를 조동사와 결합하여 부정형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다음 예와 같이 동일한 조동사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낼 경우 그 부정형식은 각각 달리 나타난다.

- (1) a. 我要回家。[의지] → 我不想回家。
- b. 路很滑, 大家要小心! [의무] → 大家不用/不必小心!
- c. 我們的理想終究要實現的。[추측] → 我們的理想終究不會實現的。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최재영(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 안연진(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생)

이러한 조동사의 비대칭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의 조동사 'must'의 경우 의무의 부정은 'must not'으로, 추측의 부정은 'can not'으로 쓰인다. 또한 'may'의 경우에도 의무의 부정은 'may not, must not, can not' 등으로, 추측의 부정은 'may not'으로 쓰인다.¹⁾

- (2) a. He **must** be in his office. [추측/의무]
 b. [추측] He **can't** be in his office. (= I'm sure he isn't in his office.)
 c. [의무] He **mustn't** be in his office. (≠ I'm sure he isn't in his office.)

이러한 중국어 조동사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의 비대칭 현상에 대한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인데 相原茂(2000), 盧曉琨(2004), 徐丹(2004), 褚智歆(2008), 박재승(2011)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논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조동사 또는 조동사 체계의 공시적 분석. 相原茂(2000)는 조동사 '得'의 부정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비대칭 현상을 양상(情態)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盧曉琨(2004)은 의미·화용적인 각도에서 '能, 可以'와 '不能'의 비대칭 문제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박재승(2011)에서는 조동사 '要'의 부정형식인 '不要'가 '금지 양태'로의 기능적 전문화로 인해 긍정과 부정형식 간에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褚智歆(2008)에서는 현대조동사 체계의 긍정과 부정에 나타나는 비대칭의 관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서술하면서, 조동사의 비대칭 현상은 石毓智(2001)가 제시한 '긍정·부정형식의 공리'이론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어유형론》 3(2008:187쪽, 246쪽)을 참고할 것.

2) 石毓智(2001:53쪽)의 '언어의 긍정·부정 공리' 이론이란 의미 정도가 비교적 작은 단어는 부정구조에만 사용될 수 있고, 의미 정도가 매우 큰 단어는 긍정구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自然語言의肯定和否定公理: 語義程度比較小的詞語, 只能用于否定結構; 語義程度極大的詞語, 只能用于肯定結構。). 그러나 이러한 '긍정·부정형식의 공리' 이론은 중국어 조동사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의 비대칭현상에 전부 적용되는 것은

둘째, 특정 조동사 또는 조동사 체계의 통시적 분석. 徐丹(2004)은 《漢語句法引論》에서 조동사의 비대칭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통사적 변천(句法演變)에 의한 것이라고만 제시할 뿐 자세한 설명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어 조동사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의 비대칭 현상에 대한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통시적인 접근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³⁾ 중국어발전사의 전면적인 이해를 위하여 개별조동사 또는 조동사체계의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조동사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에 대한 비대칭 현상, 나아가 개별조동사의 부정형식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근대중국어시기⁴⁾의 대표적인 문헌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을 모두 추출해서 이들의 출현상황과 변천상황을 조명해보고 나아가 비대칭 현상의 출현 원인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고의 분석 문헌이다.

- 唐代: 《祖堂集》, 《敦煌變文》
- 宋代: 《朱子語類》,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宋代卷)》
- 元代: 《新校元刊雜劇三十種》, 元代本《老乞大》⁵⁾
- 明代: 《金瓶梅詞話》
- 清代: 《紅樓夢》⁶⁾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 3) 최재영(2012)은 2000년 이후의 고대중국어문법학계에서의 조동사 연구로 총 62편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논문이 조동사의 긍정형식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 4) 근대중국어시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하나인 蔣紹愚(2005/2008:2-5쪽)는 唐初에서 明末清初까지를 근대중국어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清代 중기의 작품인 《紅樓夢》도 고찰하여 초기 현대중국어로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5) 元代本 《老乞大》의 명칭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양오진(1998:43-67쪽)은 이를 《舊本老乞大》라고 명명하였고, 정광(2004:34-38쪽)은 元代에 편찬되어서 이를 《元代老乞大》라 명명하기도 하고, 가장 이른 판본에 근거하여 《原本老乞大》라고도 명명하였다.
- 6) 《紅樓夢》은 일반적으로 曹雪芹이 저술한 1회~80회와 高鶚가 저술한 81회~120회를 함께 엮어서 출판되었다. 본고에서는 저자와 시기가 확실한 1회~80회를 분석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위의 8종 문헌은 唐代부터 清代에 이르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모두 각 시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고 비교적 구어체에 가까워서 당시의 어휘와 문법의 양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료된다.

II.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

근대중국어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긍정형식, 즉 의지류 조동사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개별 연구자의 조동사에 대한 인식과 연구시기에 따라 의지류 조동사의 범위는 대단히 차이가 많은 편이다. 太田辰夫(1958/2003:188~190), 吳福祥(2004a:34~37), 吳福祥(2004b:74~77), 楊永龍·江藍生(2010:62~73), 曹廣順·梁銀峰·龍國富(2011:295~297), 鞠彩萍(2011:90~93), 최재영(2008a, 2008b), 김초연(2009), 최재영·안연진(2010), 최재영·박미정(2011a, 2011b), 최재영(2012) 등이 제시한 근대중국어시기의 의지류 조동사는 ‘要, 要得, 要當, 當, 待, 肯, 敢, 欲, 欲要, 欲意, 意欲, 欲待, 欲得, 願, 情願, 願意, 願得, 愛, 懶待(懶得/懶怠), 擬, 擬欲, 欲擬, 甘, 不辭’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欲, 願, 要, 待, 肯, 敢’ 등이 있다.⁷⁾ 본고에서는 ‘欲, 願, 要, 待, 肯, 敢’ 등에 대하여 다음 판별기준을 적용하여 의지류 조동사 여부를 검증하였다.⁸⁾

7) 이상의 학자들은 현대중국어문법학계에서 상당수의 문법학자들이 의지류 조동사로 분류하고 있는 ‘想’을 의지류 조동사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재영·안연진(2010), 최재영(2012)을 참고할 것. 또한 일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음절 의지류 조동사는 두 가지 의지류 조동사를 연속 사용한 경우, 의지류 조동사와 유사 의미의 심리동사를 연속 사용한 경우, 의지류 조동사의 뒤에 ‘得’를 첨가한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의지류 조동사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이들의 부정형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음절 의지류 조동사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8) 다음 판별기준은 기존의 최재영(2008a, 2008b), 최재영·안연진(2010), 최재영(2012)에서 제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의지류 조동사의 판별기준 -

S + AUX + VP

- ① 주어(S)는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정물임.
- ② 용언성 성분(VP)을 수반함. 일부 학자들이 용언성 성분으로 분류하는 SP 구조일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재귀대체사+V’ 구조인 경우에는 ‘부사어+V’구조로 보고 분석대상에 포함시킴. 또한 용언성 성분을 구성하는 동사는 의지 동사⁹⁾임.
- ③ 의지류 조동사(AUX)의 기본 의미자질은 [+의지, +행위]임.
- ④ 의지류 조동사가 출현한 문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未然)’에 대한 서술임.

검증결과 ‘願(願意, 情願)’과 ‘敢’은 의지류 조동사와는 달리 후속성분으로 ‘SP구조’를 수반할 수 있거나,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건(已然)’에 대한 서술도 가능하여 심리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¹⁰⁾

결론적으로 근대중국어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로는 ‘欲, 要, 待, 肯’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발성, +의지, +행위]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肯’을 비전형적인 의지류 조동사로 분류하고 나면, 전형적인 의지류 조동사로는 ‘欲, 要, 待’만이 남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들의 부정형식인 ‘不欲, 不要, 不待’의 사용상황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동시에 현대중국어의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인 ‘不想’이 근대중국어시기에 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함께 고찰해볼 것이다.¹¹⁾

9) 의지 동사를 중국의 문법학계에서는 ‘自主動詞, 可控動詞’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어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동사를 일컫는 것이다.

10) ‘願(願意, 情願)’과 ‘敢’은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심리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崔宰榮(2011), 최재영·박미정(2011a, 2011b), 최재영·안연진(2011), 최재영(2012)을 참고할 것.

11) 조동사의 부정형식은 ‘不用/不必’(의무류 조동사의 부정), ‘不想’(의지류 조동사의 부정)과 같이 일반동사, 심리동사, 부사 등을 사용해서 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대중국어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는 ‘~할 계획이다, ~할 생각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심리동사의 부정형식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심리동사의 부정형식인 ‘不打算, 不意思, 不準備’ 등을 본고의 분석대상인 8종 문

1. 不欲

기존 연구에 의하면 先秦시기 '탐욕, 욕심(貪欲)'의 의미를 나타내던 명사 '欲'는 동사로 사용되어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이어서 의지류 조동사로 변천하였다.¹²⁾ 상고중국어시기에 대표적인 의지류 조동사로 사용되던 '欲'는 唐代에 '要'가 출현한 이후 그 사용빈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明清시기 이후에는 일부 글말 표현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대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출현하고 있다.¹³⁾ 아래에서는 唐~清에 이르는 8종 문헌에 출현한 '不欲'를 문법적 의미와 기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¹⁴⁾

1) 조동사의 부정

① 의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欲'는 8종 문헌 중 《變文》¹⁵⁾에서 12회, 《語類》에서 45회, 《彙編》에서 85회, 《紅》에서 3회, 총 145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헌에서 검색하였으나 관련 예문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

- 12) 의지류 조동사 '欲'의 출현과 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太田辰夫(1958/2003:189쪽), 王力(1984/1990:349쪽), 楊柏峻·何樂士(1992), 盧卓群(1996), 劉利(2000:80쪽), 段業輝(2002), 王軒(2011) 등을 참고할 것.
- 13) 明清시기에 출현한 '欲'의 사용상황은 최재영(2012)을 참고할 것.
- 14) 太田辰夫(1958/2003:189쪽), 王軒(2011)은 '欲'가 중고~근대중국어시기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欲得, 欲要, 欲待, 欲意, 欲願, 意欲' 등과 같이 이음절어 조동사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祖》(7회)와 《變文》(1회)에서는 이 중 '不+欲得'의 용례가 출현하고 있다. 다음 예문과 같이 이들 역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음절어 조동사의 부정형식이므로 본고의 고찰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老宿**不欲得**入, 見其僧苦切, 老宿許之。(노숙(老宿)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스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祖》第三·一宿覺和尚)
 - 白庄曰:「……, **不欲得**聞念經之聲。」(白庄은 “……, 독경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變文·廬山遠公話》)
- 15) 본 논문에서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祖堂集》, 《敦煌變文》, 《朱子語類》,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宋代卷)》, 《新校元刊雜劇三十種》, 《原本老乞大》, 《金瓶梅詞話》, 《紅樓夢》을 각각 《祖》, 《變文》, 《語類》, 《彙編》, 《雜劇》, 《老》, 《詞話》, 《紅》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 (3) 知營種辛苦, 不欲營種。(농사를 짓는 것이 힘든 것임을 알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려 한다.) (《變文·雙恩記》)
- (4) 如不欲害人, 這是本心, 這是不忍處。(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는 [인간의] 본래의 마음인 것이고, 이는 차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語類》第五十三·人皆有不忍人之心章)
- (5) 子曰：“不欲觀之矣。”(공자가 “‘체(禘 : 술을 땅에 부어서 신이 강림하기를 구하는 제사)’라는 제사에서 [술을] 따르는 의식이 끝난 후에, 나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語類》第二十五·論語七·自既灌而往者章)
- (6) “我本不欲行, 他兩腳自行。”(“나는 본래 걸어가지 않으려 했는데 그는 두 다리로 스스로 걸어갔다.”) (《彙編·河南程氏遺書卷·第一》)
- (7) 孟子不欲自言, 我知道耳。(孟子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彙編·河南程氏遺書卷·第九》)
- (8) 幸而寶釵走來, 大家談笑, 那黛玉方不欲睡, 自己才放了心。(다행히 寶釵가 와서 모두 함께 웃으며 말하자 저 黛玉는 비로소 잠을 자지 않으려 했고 그제야 스스로 마음을 놓았다.) (《紅》第二十回)
- (9) 尤氏深知那夫人情性, 本不欲管, 無奈賈母親自囑咐, 只得應了。(尤氏는 那夫人의 심성을 잘 알고 있기에 본래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賈母가 친히 당부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紅》第五十七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欲’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의지류 조동사는 주로 1, 3인칭 주어를 사용하여 주어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데, 예문 (5), (6)에서는 1인칭 주어 ‘吾’, ‘我’가 사용되고 예문 (7), (8), (9)에서는 3인칭 주어 ‘孟子’, ‘那黛玉’, ‘尤氏’가 사용되고 있다.

② 금지

금지를 나타내는 ‘不欲’¹⁶⁾는 8종 문헌 중 《變文》에서만 2회 출현하고 있다.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王曰：“我子, 不欲違拒。”又經旬日, 轉取多。(왕이 “내 아들의 뜻이니 거

16) 필자의 초보적인 추측으로는 ‘不欲’ 역시 ‘不要’와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다가 다시 보다 강화된 의미인 ‘~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각주 (23)을 참고할 것.

역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또 며칠이 지나자 [태자가] 더 많은 보물을 가져갔다.) (《變文·雙恩記》)

盧卓群(1996:38), 楊世勤(2007:99)은 ‘欲’가 의무류 조동사로도 사용되었는데 南北朝 이후에는 이러한 용례가 거의 출현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欲’는 唐代의 문헌에서 1회만 출현하고 있다.

2)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欲’는 8종 문헌 중 宋代의 《語類》에서 13회, 《彙編》에서 65회, 총 78회 출현하고 있다. 宋代의 두 문헌에서만 출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로 先秦시기 문헌의 인용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동사의 부정 형식에 비해 사용이 더욱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 “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也。”(…… “그 분(季孫氏)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語類》第四十六·論語二十八·季氏將伐顓臾章)
- (12)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于人。”(“밖에 나가서는 귀한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행하지 마라.”) (《彙編·河南程氏遺書卷·第二十五》)

예문 (11)에서는 3인칭 주어 ‘夫子’가 사용되고, 예문 (12)에서는 인칭대체사 ‘己’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11)에서는 ‘不欲’가 체언성 성분 ‘之’를 수반하고, 예문 (12)에서는 ‘不欲’가 어떠한 성분도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모두 동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한편, 예문 (11), (12)는 대화체이기는 하지만 옛 문헌인 《論語》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입말이 이라고 볼 수 없다.

【표 1】 '不欲'의 기능과 출현빈도

문헌과 총 출현빈도 ¹⁷⁾			기능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총계	
				의지	금지			
唐代	《祖》	165	567	·	·	·	·	14
	《變文》	402		12(85.7%)	2(14.3%)	·	14(100%)	
宋代	《語類》	2774	3489	45(77.6%)	·	13(22.4%)	58(100%)	208
	《彙編》	715		85(56.7%)	·	65(43.3%)	150(100%)	
元代	《雜劇》	19	19	·	·	·	·	·
	《老》	·		·	·	·	·	
明代	《詞話》	110		·	·	·	·	
清代	《紅》	140		3(100%)	·	·	3(100%)	
총계		4325		145	2	78	225	

【표 1】을 통해서 의지, 금지,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不欲'의 다음 상황을 알 수 있다.

첫째, '不欲'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의지 (145회/64.4%) > 동사의 부정 (78회/34.7%) > 금지 (2회/0.9%)

둘째, '不欲'는 唐宋시기에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었으나 元明시기에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고, 清代의 《紅》에 일부 예문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글말 표현인 것으로 보아, 元代 이후 입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2. 不要

盧卓群(1997)에 따르면 先秦시기 사람의 허리를 나타내던 명사 '要'는 동사로 사용되어 '허리에 묶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었고, 여기서 다시 '막다, 저지하다'와 '갈

17) '총 출현빈도'란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긍정형식인 '欲, 要, 待, 想' 등이 8종 문헌에 출현한 총 횟수를 가리킨다. 이하 각 표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냄.

망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갈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東漢시기에 의무류 조동사 ‘要’로, 그리고 唐代에는 의지류 조동사 ‘要’로 각각 변천하였다.¹⁸⁾ 唐代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 ‘要’는 급속히 기존의 대표적 의지류 조동사인 ‘欲’의 위치를 대체하였으며 이는 明清시기를 거쳐 현대중국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¹⁹⁾ 아래에서는 唐~清에 이르는 8종 문헌에 출현한 ‘不要’를 문법적 의미와 기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1) 조동사의 부정

① 의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要’는 《祖》에서 2회, 《變文》에서 2회, 《語類》에서 14회, 《雜劇》에서 2회, 《詞話》에서 3회, 《紅》에서 2회, 총 25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3) “諸方老宿, 性命總在這裡, 要放也得, 不要放也得。……” (“여러 나라 노숙(老宿)의 목숨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살려주려(/놓아주려) 해도 되고 살려주지 않으려 해도 된다. ……”) (《祖》第十六·黃蘗和尚)
- (14) “……我舍慈親來下界, 不要將身作師僧。” (“…… 나는 따뜻한 부모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왔으니 스님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²⁰⁾”) (《變文·破魔變》)
- (15) 這兩人全不同, 一人是要做事, 一人是不要做,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데, 한 사람은 일을 하려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 (《語類》第一百三十五·歷代二)
- (16) ……我不要輕輕素放了! (…… 나는 [그를] 쉽게 대가없이 살려주지(/놓아주지) 않을 거다.) (《雜劇·趙氏孤儿·第三折》)

18) 의지류 조동사 ‘要’의 출현과 발전, 사용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太田辰夫(1958/2003:189쪽), 王力(1984/1990:352쪽), 盧卓群(1997), 段業輝(2002), 周有斌(2008), 范井玲(2009), 王華麗(2009) 등을 참고할 것.

19) 明清시기에 출현한 ‘要’의 사용상황은 최재영(2012)을 참고할 것.

20)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은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려 하다’로 번역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고 싶지 않다’로 번역(특히 주어가 1인칭인 경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도 상황에 따라 ‘~하지 않으려 하다’와 ‘~하고 싶지 않다’로 번역하였다.

- (17) “我才在大官人屋里吃的飯, **不要**吃了。你餓的慌, 自吃些罷。” (“나는 방금 나리 덕에서 식사를 해서 먹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배가 많이 고프테니 좀 먹도록 해요.”) 《詞話》第五十六回)
- (18) “有應二那花子, 我不來。我**不要**見那丑冤家怪物。” (“저 應二 거지가 있으면 저는 오지 않을래요. 저 못생긴 원수 같은 물건은 보고 싶지 않아요.”) 《詞話》第七十六回)
- (19) “我何嘗**不要**送信兒, 只因馮世兒來了, 就混忘了。” (“제가 어째서 소식을 전해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단지馮덕 아드님이 와서 소란을 피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紅》第二十六回)
- (20) “…… 只是那些丫頭們天天不得出門檻子, 听了這話, 誰**不要**去。…… ” (“…… 단지 저 계집종들은 매일 문지방을 나갈 수 없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나가지 않으려 하겠어요. …… ”) 《紅》第二十九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要’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지류 조동사는 1인칭 주어 ‘我’의 뒤에 출현하여 주어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데 이와 관련된 예문은 (14), (16), (17), (18), (19)이다. 예문 (20)에서는 의문대체사 ‘誰’가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13), (15)에서는 ‘要’와 ‘不要’의 대구형식을 사용하여(‘要放也得, 不要放也得’, ‘一人是要做事, 一人是不要做’) 의지의 의미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② 금지

금지를 나타내는 ‘不要’²¹⁾는 《祖》에서 9회, 《變文》에서 21회, 《語類》에서 216

21) ‘~하지 마라’라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要’의 성격과 그 긍정형식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呂叔湘 主編(1980/1999:591-592쪽), 朱德熙(1982/2008:64쪽), 彭利貞(2007:317-318쪽), 王建軍(2007), 강선주(2007) 등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하지 마라(不要)’가 ‘~해야만 한다(要)’의 부정형식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呂叔湘 主編(1980/1999:591-592쪽)의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조동사 ‘要’를 크게 다섯 가지 의미항목, 즉 ①의지, ②의무, ③가능, ④가까운 미래, ⑤(비교문에서의) 추측으로 분류하고 금지표현의 ‘不要’에 대해서는 ‘②의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助動] 要 2. 須要; 應該. a) 否定用‘不要’. 多用于禁止或勸阻.”

둘째, 최근에는 논리적 각도에서 출발하여 ‘~해야만 한다(要)’의 부정형식은 ‘~할 필요가 없다(不必/不用)’이므로 ‘~하지 마라(不要)’는 ‘~해야만 한다(要)’의 부정형식이

회, 《彙編》에서 48회, 《詞話》에서 88회, 《紅》에서 54회, 총 436회로 전체 ‘不要’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1) 後具威儀，始欲上法堂，師云：“已相見了，**不要**上來！”(후에 엄숙한 용모와 장중한 태도를 갖추고 비로소 법당에 올라오려고 하자 스님이 “이미 만나 보았으니, 올라오지 마라!”라고 했다.) (《祖》第七·岩頭和尚)
- (22) “汝**不要**惆悵。……”(“너는 슬퍼하지 마라. ……”) (《變文·雙恩記》)
- (23) 凡看書，**須**虛心看，**不要**先立說。(무릇 독서할 때는 반드시 겸손하게 봐야하고, 먼저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 말하지 마라.) (《語類》第十一·讀書法下)
- (24) 學者**須**是務實，**不要**近名，……。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제적인 것에 힘써야 하니 명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 (《彙編·河南程氏遺書卷·第十八》)
- (25) “哥哥**不要**問，說起來裝你的幌子，只由我自去便了。”(“형님 묻지 마세요. 말하자면 형님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요. 그저 제가 스스로 떠나면 그만이에요.”) (《詞話》第一回)
- (26) 興兒連忙搖手說：“奶奶**千萬不要**去。……”(興兒은 급히 손사래를 치며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했다.) (《紅》第六十五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要’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류 조동사와는 달리 ‘마땅히 ~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의무류 조동사는 주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예문 (22)에서는 2인칭 주어 ‘汝’, 예문 (25), (26)에서는 각각 3인칭 주어 ‘哥哥’, ‘奶奶’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23), (24)에서는 앞 절에 의무를 나타내는 ‘須’가 사용되어 ‘不要’의 금지 의미가 강조되고 있으며, 예문 (26)에서는 부사 ‘千萬’과 ‘不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를 제시한 학자로는 褚智歆(2008:17-18쪽), 郭昭軍·尹美子(2008), 박재승(2011), 최재영·서지은(2012)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지를 나타내는 ‘不要’가 의무류 조동사 ‘要’의 직접적인 부정형식은 아니지만, 초기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는 의무류 조동사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의무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귀속시키고자 한다. 필자의 초보적인 추측에 의하면, ‘不要’가 초기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무류 조동사 ‘要’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다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不必/不用’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보다 강화된 의미인 ‘~하지 마라’라는 의미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要'가 함께 사용되어 금지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2)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要'는 8종 문헌에서 모두 출현하고 있는데 《祖》에서 6회, 《變文》에서 12회, 《語類》에서 43회, 《彙編》에서 30회, 《雜劇》에서 8회, 《老》에서 6회, 《詞話》에서 54회, 《紅》에서 44회, 총 203회 출현하였다. 관련 용례는 다음과 같다.

- (27) “啓師：非但六十年，百年天子也**不要**。乞師慈悲，容許某甲出家。”（啓스님이 ‘비단 60년뿐만이 아니라 100년간의 천자(天子)의 자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사님께 자비를 구하오니 제가 출가하도록 허락해주시시오.’라고 말했다.”) (《祖》第三·慧忠國師)
- (28) “不要此中爲久住，領諸天女早須歸。” “我**不要**，却將回，不願笙歌亂意懷。”（여기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늘의 여신(神女)을 일찍 이끌고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원하지는 않지만 장차 돌아갈 것인데 연주와 노래 소리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變文·維摩詰經講經文(五)》)
- (29) 吏人呈，曹曰：“**不要**。”（관리가 [공문을] 바치자, 曹는 “필요 없어.”라고 했다.) (《語類》第一百三十一·本朝五·中興至今日人物上李趙張汪黃秦)
- (30) “丈夫又**不要**我，又沒一个親戚投奔，教我那里安身？……”（남편이 나를 원하지 않기도 하고 의탁할 친척도 하나 없는데, 나보고 어디에 의지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 (《彙編·簡帖和尚》)
- (31) **不要**你大叫高呼。(당신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雜劇·新刊關目諸葛亮博望燒屯·諸葛亮博望燒屯·第二折》)
- (32) 你既**不要**時，契上明白寫著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 (《老》I 25a10)
- (33) 那吳銀兒喜孜孜辭道：“娘，我**不要**這衣服罷。”(그 吳銀兒이 흐뭇해하면서 “마님, 저 이 옷은 필요 없어요.”라고 거절했다.) (《詞話》第四十五回)
- (34) “這樣，我也**不要**了，你帶了去罷！”(“이렇다면, 나도 원하지 않으니 네가 가져가라!”) (《紅》第七十三回)

동사로 쓰인 '不要'의 주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문 (28), (33), (34)

에서는 1인칭 주어 ‘我’가 사용되고 예문 (30)에서는 3인칭 주어 ‘丈夫’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예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예문 (27), (28)에서는 ‘不要’가 어떠한 성분도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예문 (29)에서는 ‘不要’가 단독으로 사용되어 문장을 구성한다. 예문 (30), (33)에서는 ‘不要’가 각각 ‘我(인칭대체사)’, ‘這衣服罷(명사구)’인 체언성 성분을 수반하고, 예문 (31)에서는 ‘不要’가 절 목적어를 수반하며, 예문 (32)에서는 ‘不要’가 ‘~한다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후치사 ‘時²²⁾’와 함께 쓰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동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표 2】 ‘不要’의 기능과 출현빈도

문헌과 총 출현빈도			기능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총계	
				의지	금지			
唐代	《祖》	139	398	2(11.8%)	9(52.9%)	6(35.3%)	17(100%)	52
	《變文》	259		2(5.7%)	21(60%)	12(35.3%)	35(100%)	
宋代	《語類》	4536	5823	14(5.1%)	216(79.1%)	43(15.8%)	273(100%)	351
	《彙編》	1287		·	48(61.5%)	30(38.5%)	78(100%)	
元代	《雜劇》	102	121	2(20%)	·	8(80%)	10(100%)	16
	《老》	19		·	·	6(100%)	6(100%)	
明代	《詞話》	1830		3(2.1%)	88(60.7%)	54(37.2%)	145(100%)	
清代	《紅》	1662		2(2%)	54(54%)	44(44%)	100(100%)	
총계		9834		25	436	203	664	

【표 2】를 통해서 의지, 금지,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不要’의 다음 상황을 알 수 있다.

첫째, ‘不要’의 기능별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금지(436회/65.6%) > 동사의 부정(203회/30.6%) > 의지(25회/3.8%)

둘째, 현대중국어에서 ‘不要’는 금지 의미로만 사용되는데, 근대중국어시기에는

22) 余志鴻(1992)은 元代에 출현한 이러한 기능의 ‘時’를 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의지도 일부 나타내고 있어 현대중국어와는 다른 사용양상을 띠고 있다.²³⁾

셋째, 의지를 나타내는 ‘不要’의 출현빈도는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전반적으로 清代로 갈수록 출현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祖》: 2회(11.8%) ⇨ 《變文》: 2회(5.7%) ⇨ 《語類》: 14회(5.1%) ⇨
《雜劇》: 2회(20%) ⇨ 《詞話》: 3회(2.1%) ⇨ 《紅》: 2회(2%)

다만 元代의 《雜劇》에서 20%라는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인 변천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데, 총 용례 자체가 단 10회에 지나지 않은 점과 동일시기의 문헌인 《老》에는 전혀 출현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변천 추세에 거스르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출현양상에 근거해보면, 현대중국어시기에 근접할수록 의지를 나타내는 ‘不要’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표준중국어에서 소실되는 것으로 보인다.

3. 不待

‘待’의 연원이나 발전양상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唐代의 문헌 연구서에는 ‘待’의 출현에 대한 언급이 없고, 《漢語大詞典》(1990/1993: 3-941), 《漢語大字典》(1993:344), 《宋語言詞典》(1997:63), 刁晏斌의 《〈三朝北盟會編〉語法研究》(2007:5) 등에서 宋代에 ‘待’의 의지류 조동사의 용례가 출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漢語大詞典》(1990/1993:3-941)에서는 ‘待’가 漢代에 이미 의무류 조동사의 용법이 출현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고찰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²⁴⁾ 아래에서는 唐~清에 이르는 8종 문헌에

23) 朱德熙(1982/2008:64쪽), 劉月華等(1983/2009:176쪽)에서는 ‘不要’로 의지류 조동사 ‘要’의 부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남방인들이 구사하는 중국어에서는 ‘不想’과 함께 ‘不要’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漢語大詞典》(1990/1993:3-941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예문 모두 부정형식인 ‘不待’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史記·天官書》: “傳其人, 不待告。(제 사람에게 전수할 때는 말해줄 필요 없다.)”
張守節正義: “待, 須也。(待는 須(~해야만 한다)의 의미이다.)”

출현한 ‘不待’의 문법적 의미와 기능을 분류하여 이를 살펴보겠다.

1) 조동사의 부정

① 의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待’는 8종 문헌 중 《語類》에서 13회, 《雜劇》에서 3회, 《詞話》에서 8회, 《紅》에서 1회, 총 25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5) 顏子固不待說, 如“子路有聞, 未之能行, 惟恐有聞”, 豈不是有志? (顏子是 본래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는] “子路가 듣고는 아직 그것을 행할 수 없었고 단지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 것처럼 어찌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語類》第一百一十八·朱子十五)
- (36) 我煞不待言, 不近前, 你也不分良善, ……。(나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당신도 좋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 (《雜劇·古杭新刊的本尉遲恭三奪槩·尉遲恭三奪槩[一]·第四折》)
- (37) 誰不待學案齊眉學孟光。(누가 孟光처럼(/에게 배워서) 남편에게 밥상 올릴 때는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 올리지 않으려 하겠어요.) (《雜劇·古杭新刊小張屠焚兒救母·小張屠焚兒救母·第一折》)
- (38) “……他便和那韓道國老婆, 那長大擗瓜淫婦, 我不知怎的, 掐了眼兒不待見他!” (“…… 그와 저 韓道國 마누라, 커다란 호박이 문드러진 것 같은 저 요부 말이야. 내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꼬집어도 보고 싶지 않아!”) (《詞話》第七十八回)
- (39) 西門慶道: “我心里還不待吃, ……”。(西門慶은 “나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먹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다.) (《詞話》第四十回)
- (40) “……難道圖你受用一回, 叫他知道了, 又不待見我。” (“…… 설마 네가 한

·《二程遺書》卷二十八: ……須用勉強; ……則不待勉強。(……함에 있어서는 강요해야 하고, ……함에 있어서는 강요할 필요가 없다.)

·魯迅《書信集·致許欽文》: ……則自然更不待言。(……, 자연히 더욱 말할 필요 없다.)

《漢語大詞典》에서 대부분의 경우 긍정형식이 사용된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待’가 의무류 조동사로 사용될 경우 긍정형식보다는 부정형식 위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번 즐기려고 꾸민 것을 그에게 들키면, [그는] 나를 보지 않으려 할 거야.”) (《紅》第二十一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待’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의지류 조동사에는 1인칭이나 3인칭 주어와 주로 사용되는데 예문 (36), (38), (39)에서는 1인칭 주어 ‘我’가 사용되고 예문 (35)에서는 3인칭 주어 ‘顏子’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37)에서는 의문대체사 ‘誰’가 사용되고 있다.

② 불필요

앞에서 고찰한 ‘不要’, ‘不欲’와는 달리 ‘不待’는 ‘의지’ 이외에 ‘금지’가 아닌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례는 漢代의 《史記》에서부터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8종 문헌 중 《語類》에서 131회, 《彙編》에서 11회, 《詞話》에서 4회, 총 146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只看這數句，幾多分曉！也**不待**解說。(단지 이렇게 많은 문장을 볼 때는 많이 보면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 설명할 필요는 없다.) (《語類》第九十七)
- (42) 曰：“**不必**言**不待**推。……” (“말할 필요 없고, 미루어 짐작할 필요도 없다. ……”) (《語類》第十六·傳九章釋家齊國治)
- (43) 先生曰：“生而知之固**不待**學，然聖人**必須**學。” (스승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은 본래 배울 필요가 없지만 성인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했다.) (《彙編·河南程氏遺書卷·第十九》)
- (44) 府尹道：“你**不消**多言，我已盡知了。”因把司吏錢勞叫來，痛責二十板，說道：“你那知縣，也**不待**做官，何故這等任情賣法？”(府尹이 “너는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리 錢勞를 불러 곤장 스무 대를 때리는 엄벌에 처하며 말했다. “너는 네 지현(知縣: 明清시기 관직명) 노릇도 할 필요가 없다. 어찌하여 이렇게 네 미음대로 법을 재단(/판단)한단 말이나?”) (《詞話》第十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待’는 불필요, 즉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의무류 조동사로 사용된 ‘待’의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예문 (42)과 (43)에서는 ‘不待’와 함께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必’, ‘必須’

가 사용되어 불필요의 어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예문 (44)에서는 앞 문장에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消’(~할 필요가 없다)가 사용되어 불필요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한편, 宋代의 두 문헌 중 《語類》에서는 ‘不待’의 용례가 대단히 많이 출현(131회)하고 있는데 동일한 표현이 중복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뒤에 결합하는 동사도 제한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이는 《語類》가 성리학을 설명하고 있는 까닭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책 자체의 분량(총 8책, 3343쪽)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형식적으로도 ‘必(須)+VP’와 ‘不待+VP’를 대가로 사용한 예문이나 ‘不待……, 自然……’ 등의 표현이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2)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待’는 8종 문헌 중 《祖》에서 3회, 《語類》에서 48회, 《彙編》에서 20회, 《雜劇》에서 2회, 《詞話》에서 1회, 《紅》에서 6회, 총 80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5) …… 不待天明便去開元寺槌門。(……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開元寺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祖》第十四·江西馬祖)
- (46) 若有箇三底道理, 聖人想自說了, 不待後人說矣。(만약에 세 가지의 도리가 있다면, 성인 자신은 직접 말하려고 싶어 하지 후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다.) (《語類》第一百三十七·戰國漢唐諸子)
- (47) 進云。“磨后如何?” 師云。“風不待月而涼。”(進이 “연마한 후에는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자 스님이 “바람이 달을 기다리지 않고 선선해집니다.”라고 말했다.) (《彙編·大慧普覺禪師云居首座寮秉拂語彙卷·第九》)
- (48) …… 還只把兩個缸家決不待時。安童便放了。(…… 또한 두 缸家만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해서, 安童이 풀려났다.) (《詞話》第四十九回)
- (49) 宝釵不待他說完, 便嗔他不去倒茶, 一面又問宝玉從那來。(宝釵는 그가 말을 끝마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차를 따라주러 가지 않은 것에 화내며 宝玉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다.) (《紅》第八回)

예문 (47)에서는 ‘風’이 의인화되어 주어로 사용되고 있고, 예문 (49)에서는 3인칭 주어 ‘宝釵’가 사용되고 있다. 예문 (45), (46), (49)에서 ‘不待’는 절 목적어를

수반하고 예문 (47)에서는 체언성 성분 ‘月’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모두 동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표 3】 ‘不待’의 기능과 출현빈도

문헌과 총 출현빈도			기능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총계	
				의지	불필요			
唐代	《祖》	72	130	·	·	3(100%)	3(100%)	3
	《變文》	58		·	·	·	·	
宋代	《語類》	571	1042	13(6.8%)	131(68.2%)	48(25%)	192(100%)	223
	《彙編》	471		·	11(35.5%)	20(64.5%)	31(100%)	
元代	《雜劇》	262	288	3(60%)	·	2(40%)	5(100%)	5
	《老》	26		·	·	·	·	
明代	《詞話》	496		8(61.5%)	4(30.8)	1(7.7%)	13(100%)	
清代	《紅》	212		1(14.3%)	·	6(85.7%)	7(100%)	
총계		2168		25	146	80	251	

【표 3】을 통해서 의지, 불필요,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不待’의 다음 상황을 알 수 있다.

첫째, ‘不待’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의무류 조동사(146회/58.1%) > 동사(80회/31.9%) > 의지류 조동사(25회/10%)

둘째, ‘不待’는 唐代에는 동사의 부정형식으로만 출현하였다가 宋元明시기에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어 의지, 불필요 등을 나타내었다. 주로 宋代에 빈번히 사용하였으며 元明清시기 출현빈도가 점차 감소하여 현대의 표준중국어에서는 조동사 용법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元代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不待’가 明代의 《詞話》에서는 드물지 않게 출현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詞話》에는 총 13개의 예문 중 ‘不待見(보지 않으려 한다)’²⁵⁾이 4회나 출현하여 30.75%를 차지하고 있다.

25) 《金瓶梅詞典》(1988:49쪽)에서는 이를 ‘싫어하다(不喜歡, 討厭)’의 의미로 해석하고

《詞話》는 연정소설로 남녀의 애정관계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있으며, ‘不待見’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했을 것이다.²⁶⁾ 이에 따라 ‘不待見’의 출현빈도가 《詞話》와 전체 출현빈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4. 不想

‘想’의 연원이나 발전양상에 대한 기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漢語大字典》(1993:971)에 제시된 의미항목의 순서에 따르면 ‘想’은 ‘상상하다(想象)’라는 동사에서 ‘생각하다, 사색하다(思考; 思索)’라는 동사로, 이어서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希望; 打算)’의 동사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²⁷⁾ 《漢語大字典》과 《漢語大詞典》(1990/1993:7-606)에서 ‘想’이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希望; 打算)’의 의미로 사용된 초기용례²⁸⁾로 六朝시기 문헌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의미의 출현이 六朝시기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不想’이 근대중국어시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겠다.

있는데 이는 ‘不待見(보지 않으려 한다)’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6) 앞의 예문 (40)에서 볼 수 있듯이 《紅》의 유일한 예문 역시 ‘不待見’이다.

27) 중국어문법학계에서 일부 학자들은 ‘想’을 의지류 심리동사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想’을 의지류 조동사로 귀속시키고 있다. ‘想’을 의지류 심리동사로 분류하는 학자로는 呂叔湘(1953:4-5쪽), 凌冰(1954:11쪽), 高耀墀(1957:39쪽), 施樹森(1957:11쪽), 丁勉哉(1959:46-47쪽), 黎錦熙·劉世儒(1959:116-119쪽, 141쪽), 崔伯阜(1963:9쪽), 王鐘林(1979:9쪽), 華宏儀(1980:9쪽), 吳積才·程家樞(1981:281쪽), 劉月華等(1983/2009:96쪽), 鄭福南·秦旭卿等(1983:22쪽), 孟琮(1987), 袁義林(1988), 李英哲·鄭良偉(1990:148-172쪽), 錢乃榮(1990:175-176쪽), 袁毓林(1993:30-33쪽), 周有斌·邵敬敏(1993), 王紅斌(1998), 楊雲(1999), 丰競(2003), 江胜利(2004) 등이 있고, ‘想’을 의지류 조동사로 분류하는 학자로는 太田辰夫(1958:184-192쪽), 朱德熙(1982:61-66쪽), 李臨定(1986:164-180쪽), 馬慶株(1988:47-52쪽), 王振來(2002) 등이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에 ‘想’이 가지고 있는 심리동사의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재영·안연진(2011), 안연진(2012:35-42쪽)을 참고할 것.

28) “四海想中興之美, 羣生懷來蘇州之望。”(“온 나라가 부흥하고 싶어 하니 백성들은 蘇州로 오려는 마음을 품는다.”) (晉·劉琨-《勸進表》) 《漢語大詞典》(1990/1993:7-971쪽)

1) 조동사의 부정

① 의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想'은 8종 문헌 중 明代의 《詞話》에서 6회, 清代의 《紅》에서 9회, 총 15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0) 吳月娘見西門慶在院中留戀烟花, 不想回家, 一面使小廝玳安, 拿馬往院中接西門慶。(吳月娘은 西門慶이 기생집에서 기생(李桂卿)을 떠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려 하자, 하인 玳安을 시켜 말을 끌고 기생집으로 가서 西門慶을 모셔오라 했다.) (《詞話》第十二回)
- (51) 西門慶道：“我心里不想吃。”(西門慶이 “나는 마음속으로는 먹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詞話》第七十九回)
- (52) “…… 你要看了, 連飯也不想吃呢。”(“…… 당신이 봤다면 밥도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紅》第二十三回)
- (53) …… 那一个不想巴高望上, 不想出頭的? (…… 어떤 사람이 권력 있는 자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출세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紅》第四十六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想'은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다양한 인칭의 주어 사용되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예문 (50)에서는 3인칭 주어 '西門慶', 예문 (51)에서는 1인칭 주어 '我', 예문 (52)에서는 2인칭 주어 '你'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53)에서는 '不想'이 반어문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不想'의 일부 예문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구조로도 출현하고 있다.

- (54) 宝玉笑道：“也倒不想什么吃, 倒是那一回做的那小荷叶儿小蓮蓬儿的湯還好些。”(宝玉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튼 어떤 것도 먹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저번에 만들어 준 연잎과 연방으로 만든 탕(小荷叶儿小蓮蓬儿湯)이 좀 더 좋아요(/먹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紅》第三十五回)
- (55) 自己原不想栗子吃的, 只因怕爲酥酪又生事故, 亦如茜雪之茶等事, 是以假以栗子爲由, 混過宝玉不提就完了。(나는 원래 밤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酥酪(소와 양의 우유로 만든 음식)의 일, 茜雪의 차(茶) 사건

등의 일이 또 일어날까 두려웠다. [그러니] 밤을 거것으로 핑계 삼아 宝玉을 속이고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 (《紅》第十九回)

위의 예문은 모두 ‘不想+O+吃’의 구조로 출현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不想+吃+O’ 구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V(吃)와 O가 도치된 형식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현대중국어의 吳方言에서도 출현하고 있다.²⁹⁾ 《紅樓夢》이 北京방언 위주로 쓰여졌지만 江淮방언과 吳방언의 영향도 많이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不想+O+吃’구조 역시 吳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³⁰⁾

2)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想’은 8종 문헌 중 《雜劇》에서 15회, 《詞話》에서 166회, 《紅》에서 46회, 총 227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6) 他**不想**夫婦恩重如山, 待將一个親男兒謀算了。(그녀는 부부의 정이 산 처럼 깊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남편을 모해하려고 했습니다.) (《雜劇·新編足本關目張千替殺妻·張千替殺妻·第三折》)
- (57) “我怎麼**不想**達達, 只要你松柏兒冬夏長青便好, 休要日遠日疏, ……” (“제가 어찌 나리를 그리워하지 않았겠어요. 단지 나리가 푸른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기만 하면(/저를 사랑해주면) 돼요. 시간이 흘러도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詞話》第七十九回)
- (58) 你也**不想**想, 焦大太爺蹺蹺脚, 比你的頭還高呢。(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 큰 아버지 焦가 발뒤꿈치를 올리면 네 머리 보다 높잖아.) (《紅》第七回)
- (59) “老二, 你果然是个好漢, 我何曾**不想**着你, ……” (“둘째야, 너는 과연 사내대장부로구나. 내가 어찌서 너를 생각하지 않았겠니. ……”) (《紅》第二十四回)

29) 吳方言에서 나타나는 ‘SOV’어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黃伯榮(1996:727쪽), 錢乃榮(1997:260-263쪽)을 참고할 것.

30) 《紅樓夢》의 기초방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蔣文野(1983), 沈新林·漫話(2001), 王毅(2007), 林綱·劉晨(2011) 등을 참고할 것.

상술한 예문에서 '不想'은 동사 '想'의 여러 의미항목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문 (57)의 '不想'은 '그렇다'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고, 예문 (56), (58), (59)의 '不想'은 '생각하다'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사로 쓰인 '不想'의 주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문 (57), (59)에서는 1인칭 주어 '我'가 사용되고 예문 (58)에서는 2인칭 주어 '你'가 사용되고, 예문 (56)에서는 3인칭 주어 '他'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예문에서 '不想'은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나타낸다. 예문 (56)에서는 절 목적어를 수반하고, 예문 (57)에서는 체언성 성분인 '達達'를 수반하며 예문 (58)에서는 중첩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예문 (59)에서는 동태조사 '着'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동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한편 '不想'은 고정적으로 사용되면서 '어휘화(詞匯化, lexicalization)'되어 '不料, 沒想到(뜻밖에)'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³¹⁾ 최초의 용례는 宋代의《彙編》(1회)에서 보이기 시작하며,³²⁾ 이후《雜劇》에서 17회,《詞話》에서 56회,《紅》에서 21회, 총 95회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0) 滕大尹大惊, 道:“常聞得捉賊的就做賊, **不想**王遵、馬翰真个做下這般勾當!”(滕관리가 몹시 놀라며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도둑이 된다는 말은 자주 들어봤는데 뜻밖에 王遵, 馬翰이 정말 이런 짓을 하다니!”라고 말했다.) (《彙編·宋四公大鬧禁魂張》)
- (61) 本向靈隱寺祭福星, **不想**到宅上惹禍根。(본래는 靈隱寺에 가서 신(福星)에게 제사지려고 했는데, 뜻밖에 집에 갔더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雜劇·大都新刊關目的本東窗事犯·東窗事犯·第四折》)
- (62) 外邊排軍、伴當備下馬伺候, 還等西門慶往衙門里大發放, **不想**又添出這

31) 《漢語大詞典》(1990/1993:1-457쪽), 《現代漢語詞典(第六版)》(2012:112쪽), 《現代漢語規範詞典》(2004:109쪽)에서는 이러한 '不料'를 각각 '동사', '부사', '접속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不料'의 품사의 귀속이 논의의 중점이 아니라 '뜻밖에'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不料'의 품사 귀속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32) 《漢語大詞典》(1990/1993:1-457쪽)에서는 '不想'의 초기 용례로 元代의 문헌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의 조사 결과 宋代에 이미 해당 예문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樣症候來。(밖에는 포졸들이 말에서 내려 기다릴 준비를 하면서, 西門慶이 관아로 가서 크게 처벌 받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시 이러한 병이 난 것이다.) (《詞話》第七十九回)

- (63) “**不想**日未落時, 天就變了, 淅淅瀝瀝的下起雨來。” (“뜻밖에 해가 아직 지지 않았을 때 날씨가 변해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紅》第四十五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想’은 모두 ‘뜻밖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不想’ 뒤에는 ‘뜻하지 않은 사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어휘화된 ‘不想’은 ‘不+조동사/동사’와 같은 통사적 성분이 아니므로 아래의 출현빈도표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표 4】 ‘不想’의 기능과 출현빈도

문헌과 총 출현빈도			기능		동사의 부정	총계
			조동사의 부정	의지		
唐代	《祖》	26	72	.	.	.
	《變文》	46		.	.	
宋代	《語類》	416	636	.	.	.
	《彙編》	220		.	.	
元代	《雜劇》	253	259	.	15(100%)	15(100%)
	《老》	6		.	.	.
明代	《詞話》	444		6(3.5%)	166(96.5%)	172(100%)
清代	《紅》	940		9(16.4%)	46(83.6%)	55(100%)
총계		2351		15	227	242

【표 4】를 통해서 의지,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不想’의 다음 상황을 알 수 있다.

첫째, ‘不想’의 기능별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동사의 부정 (227회/93.8%) > 의지 (15회/6.2%)

둘째, ‘不想’은 宋代까지 거의 출현하지 않다(33), 元代 이후 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된 용례는 明代가 되어서야 출현하였다. 六朝시기에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希望; 打算)’를 의미하는 ‘想’이 출현한 점을 고려해보면, 그 부정형식인 ‘不想’도 六朝시기 이후에 일정 정도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지만 고찰 결과 唐宋元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의지를 나타내는 ‘不想’의 조대별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明代 《詞話》: 6회(3.5%) ⇨ 清代 《紅》: 9회(16.4%)

결론적으로 ‘不想’은 현대중국어에서의 사용상황과는 달리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일반 심리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된 경우가 더 빈번하다. 또한 비교적 늦은 시기인 明代에 출현하여 清代에 사용례가 증가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근대중국어시기의 대표적인 8종 문헌에 출현하는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 ‘不欲, 不要, 不待, 不想’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각 기능과 출현빈도를 종합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33) 宋代에 예문이 1회 출현하였으나 ‘뜻밖’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표 5】'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기능과 출현빈도

기능 문헌	不欲				不要				不待				不想			총계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계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계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계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계
	의지	금지			의지	금지			의지	불필요			의지	금지			
唐	祖	·	·	·	·	2	9	6	17	·	·	3	3	·	·	·	20
	變文	12	2	·	14	2	21	12	35	·	·	·	·	·	·	·	49
宋	語類	45	·	13	58	14	216	43	273	13	131	48	192	·	·	·	523
	彙編	85	·	65	150	·	48	30	78	·	11	20	31	·	·	·	259
元	雜劇	·	·	·	·	2	·	8	10	3	·	2	5	·	15	15	30
	老	·	·	·	·	·	·	6	6	·	·	·	·	·	·	·	6
明	詞話	·	·	·	·	3	88	54	145	8	4	1	13	6	166	172	330
清	紅	3	·	·	3	2	54	44	100	1	·	6	7	9	46	55	165
총계		145	2	78	225	25	436	203	664	25	146	80	251	15	227	242	1382

다음은 【표 5】에 나타난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출현양상의 특징이다.

가. 전체 출현빈도에 따라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을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不要(664회/48%) > 不待(251회/18.2%) > 不想(242회/17.5%) > 不欲(225회/16.3%)

나. '不欲, 不要, 不待, 不想' 모두 조동사의 부정형식과 동사의 부정형식 두 가지로 사용되었는데,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될 경우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

- 의지: 不欲, 不要, 不待, 不想
- 금지: 不欲, 不要
- 불필요: 不待

다.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출현한 빈도에 따라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을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不欲(145회/69.1%) > 不要(25회/11.9%)/不待(25회/11.9%) > 不想(15회/7.1%)

둘째. 각 시기에 사용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과 출현빈도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과 출현빈도

시기	唐	宋	元	明	清
부정 형식	不欲(12/75%)	不欲(130/82.8%)	不待(3/60%)	不待(8/47.1%)	不想(9/60%)
	不要(4/25%)	不要(14/8.9%)	不要(2/40%)	不想(6/35.3%)	不欲(3/20%)
		不待(13/8.3%)		不要(3/17.6%)	不要(2/13.3%)
					不待(1/6.7%)
총계	16	157	5	17	15

다음은 【표 6】에 나타난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출현과 변천양상의 특징이다.

가. 각 시기별 의지류 조동사의 대표적인 부정형식은 다음과 같다.

唐宋 元明 清
不欲 不待 不想

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唐 이후 대표적인 의지류 조동사는 ‘要’이다. ‘欲’는 기본적으로 입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글말 표현에서 의고적으로 사용하는 의지류 조동사이고, ‘待’는 宋元明시기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의지류 조동사이다.³⁴⁾ 긍정형식에서는 ‘要’가 이처럼 절대적인 사용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반면에 부정형식에서는 이상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不欲, 不待, 不想, 不要’ 등이 혼용되고 있어 사용상의 비대칭 현상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의지류 조동사 ‘要’의 부정형식인 ‘不要’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탓인 것으로 보인다.

34) 최재영(2012)에 따르면 明清시기 7종 문헌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 ‘要, 欲, 待’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要(2940회, 90%) > 待(163회, 5%) > 欲(162회, 5%)

다. 현대 표준중국어의 상황과는 달리 '不要'가 근대중국어시기에는 의지를 나타내는데 사용(25회/5.4%)되었지만, 그 어느 시기에도 주요 표현은 아니었다. 이는 '不要'가 주로 금지를 나타내는데 사용(436회/94.6%)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不想'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明代에 출현한 후 清代에 들어서야 의지류 조동사 부정형식의 주요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심리동사 '想'의 여러 의미항목 중 하나인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가 六朝~元代시기에 해당 의미장에서 주요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³⁵⁾

마. 부정형식의 변천양상 중에는 층위화(layering) 현상³⁶⁾이 존재하고 있다. 즉, 신형식의 출현 이후에도 구형식이 함께 잔존하고 있는데 宋代에 '不待'가 출현한 이후에도 구형식인 '不欲, 不要'와 함께 사용되었다. 元代에는 상고시기부터 줄곧 사용되어 오던 '不欲'는 출현하지 않지만 구형식인 '不待'와 '不要'가 계속 함께 사용되었고, 明代에는 신형식인 '不想'이 출현하였지만 구형식인 '不待, 不要'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결국 清代가 되어서야 주요 표현으로 자리하게 되는 '不想'은 기존에 사용되던 '不欲, 不要, 不待'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셋째. 근대중국어시기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의 이와 같은 출현과 변천양상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가. 일반언어학 관점에서 보면 양상을 나타내는 일부 동사나 조동사는 여러 의미항목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등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인간의 사

35) 안연진(2012:46-48쪽)에 따르면 明代의 문헌인 《初刻拍案惊奇》, 《金瓶梅詞話》, 《醒世姻緣傳》에서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想'은 211회 출현하는데 여기서 '想'이 '道'나 '說'를 수반하는 구조가 199회 출현하여 그 결합양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려면 긍정형식 전부의 양상을 살펴봐야 하지만 근대중국어시기에 '想'이나 '不想'은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로 동사의 주요 의미의 항목(생각하다, 그리워하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6) 이성하(1998:173-175쪽)에 의하면, 층위화(layering)란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러 문법화소들이 같은 기능의 영역 안에서 자꾸 문법화 되지만, 옛 층위는 새 층위가 생겨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공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공시적으로 층위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고 패턴이다.³⁷⁾ 한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어(‘要’와 ‘不想’)와 영어(‘must’와 ‘can’t’)의 일부 조동사는 나타내고 있는 의미에 따라 각기 다른 부정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현상은 표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지이론에 따르면 무표항은 이해와 습득이 쉽고, 유표항은 이해와 습득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긍정형식과 현실문은 무표항에 속하고, 부정형식과 비현실문은 유표항에 속한다.³⁸⁾ 무표항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주지 않고, 유표항의 경우에는 [1]이라는 가중치를 주어서 이해와 습득의 난이도를 표시할 경우 조동사를 사용한 긍정문과 부정문의 난이도는 다음과 같다.

조동사를 사용한 긍정문: 비현실문이고 긍정문이므로 난이도는 [1].

조동사를 사용한 부정문: 비현실문이고 부정문이므로 난이도는 [2].

난이도가 낮은 경우 특정 문법형식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어도 이해와 습득이 쉬운 반면,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해와 습득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현실문의 경우 난이도는 0(긍정문)과 1(부정문)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조동사를 사용한 긍정문의 경우 비현실문이므로 이미 난이도 [1]에 해당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특정 문법형식(예를 들어 의지, 의무,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要’)의 이해와 습득이 이미 그다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조동사를 사용한 부정문은 난이도 [2]에 해당하여 이해와 습득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조동사의 각 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부정형식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³⁹⁾

나. 그렇다면 唐~清시기에 ‘不欲, 不要, 不待, 不想’ 등이 혼용된 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은 이상의 여러 가지가 가능

3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어유형론》 3 (2008:350-409쪽), 《인지언어학 옥스퍼드 핸드북》(2011:994-998쪽)을 참고할 것.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沈家焯(1999:43쪽, 106쪽)을 참고할 것.

39) 沈家焯(1999:330쪽)은 “언어교류전략과 화용규칙은 문법적인 비대칭현상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이다.(語言交流策略和語用規律是造成語法不對稱的重要原因.)”라고 주장하였다.

한데 가능한 여러 표현 중 각 시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형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欲, 要, 待’를 중심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欲, 要, 待’는 모두 의지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사용되었는데 각 조동사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출현 순서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欲	의지	⇨	의무
要	의무	⇨	의지
待	의무	⇨	의지

그리고 【표 5】에 나타난 ‘不欲, 不要, 不待’의 두 의미별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不欲	의지(145회, 98.6%)	>	의무(2회, 1.4%)
不要	의무[금지](436회, 94.6%)	>	의지(25회, 5.4%)
不待	의무[불필요](146회, 85.4%)	>	의지(25회, 14.6%)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통해서 ‘欲, 要, 待’의 부정형식이 주로 나타내는 의미는 각 조동사가 가진 최초의 의미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唐 이후 대표적인 의지류 조동사로 ‘要’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不要’는 의지류 조동사의 대표적인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唐宋시기에는 부정형식 역시 대부분 의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不欲’가 사용되었으나 ‘欲’가 唐 이후 글말에서 주로 사용되었기에 元代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不待’는 宋代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元明시기까지 대표적인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었으나 출현빈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다.⁴⁰⁾ 게다가 ‘待’는 宋元明시기에만 사용되었던 조동사이기에 清代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이 필요하였으며 이 자리에 ‘不想’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唐~淸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에 대하여 출현빈도,

40) ‘待’의 조동사 용법은 ‘의무 ⇨ 의지’ 순으로 출현하였기 때문에 부정형식도 주로 의무[불필요](146회, 85.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나타내는 용법도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좀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변천양상을 고찰해보고 아울러 이러한 현상의 출현 원인에 대하여 초보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清代 이후의 사용상황, 不想의 출현 원인, 기타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비대칭 상황'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 靜筠二禪師《祖堂集》北京, 中華書局, 2007/2010.
 黃征, 張涌泉 校注《敦煌變文校注》北京, 中華書局, 1997.
 黎靖德 編《朱子語類》(第七冊) 北京, 中華書局, 1994.
 劉堅, 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匯編》(宋代卷) 北京, 商務印書館, 1992/2007.
 徐沁君 校《新校元刊雜劇三十種》北京, 中華書局, 1980.
 鄭光 主編《原本老乞大》北京, 外研社, 2002.
 蘭陵笑笑生 著 / 陶慕宇 校注《金瓶梅詞話》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曹雪芹, 高鶚《紅樓夢》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8.
 白維國 主編《紅樓夢詞典》北京, 商務印書館, 1995.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編《漢語大字典》四川-湖北, 四川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 1993.
 李行健 主編《現代漢語規範詞典》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4.
 劉堅, 江藍生 主編《宋-語言詞典》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7.
 羅竹風 主編《漢語大詞典》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1993.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北京, 商務印書館, 1980/1999.
 許少峰 編《近代漢語詞典》北京, 中華書局, 2008.
 王利器 主編《金瓶梅詞典》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8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現代漢語詞典(第五版)》北京, 商務印書館, 2005.
 송경안, 이기갑 외《언어유형론》3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8.
 양오진《〈老乞大〉·〈朴通事〉研究》서울, 태학사, 1998.
 이성하《문법화의 이해》서울, 한국문화사, 1998/2006.
 정광《原本老乞大》서울, 김영사, 2004.
 D.Geeraerts · H.Cuyckens《인지언어학 옥스퍼드 핸드북》서울, 로고스라이프, 2011.

-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Revere D. Perkins,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崔伯阜《語法基礎知識》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63.
- 刁晏斌《〈三朝北盟會編〉語法研究》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7.
- 丁勉哉《現代漢語語法講義》(上冊) 上海, 華東師範大學函授部, 1959.
- 段業輝《中古漢語助動詞研究》南京, 南京師範大學出版社, 2002.
-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0/2003.
- 高耀墀《現代漢語語法》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57.
- 郭錫良《古代漢語語法講稿》北京, 語文出版社, 2007.
- 華宏儀《實用漢語語法》濟南, 山東人民出版, 1980.
- 黃柏榮《現代漢語》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0.
- _____ 主編《漢語方言語法類編》青島, 青島出版社, 1996.
-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2008.
- _____, 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北京, 商務印書館, 2005.
- 鞠彩萍《〈祖堂集〉動詞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 黎錦熙, 劉世儒《漢語語法教材(第二篇詞類和構詞法)》北京, 商務印書館, 1959.
- 李臨定《現代漢語句型》北京, 商務印書館, 1986.
- 李英哲, 鄭良偉等《實用漢語參考語法》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0.
- 凌冰《語法知識提要》北京, 大眾出版社, 1954.
- 劉利《先秦漢語助動詞研究》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0.
- 劉月華, 潘文娛, 故韡《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1983/2009.
- 呂叔湘《語法學習》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53.
- 馬建忠《馬氏文通》北京, 商務印書館, 1898/1983.
- 彭利貞《現代漢語情態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錢乃榮《上海話語法》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7.
- 沈家炫《不對稱和標記論》江西, 江西教育出版社, 1999/2005.
- 施樹森《漢語語法提要》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57.
- 石毓智《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稱》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1.
- 太田辰夫 著 / 蔣紹愚, 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58/2003.
- 王力《漢語語法史》《王力文集》第11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4/1990.
- 王鍾林《現代漢語語法》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79.
- 吳福祥《〈朱子語類輯略〉語法研究》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a.

- _____ 《敦煌變文12种語法研究》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4b.
- _____ 編《漢語語法化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吳積才, 程家樞《現代漢語》 昆明, 云南人民出版社, 1981.
- 邢福義《否定形式的格式制約》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10.
- 徐晶凝《現代漢語話語情態研究》 北京, 昆侖出版社, 2008.
- 楊柏峻, 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1992.
- 袁毓林《現代漢語祈使句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3.
- 張斌《現代漢語描寫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2010.
- 鄭福南, 秦旭卿等《漢語語法新編》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83.
- 朱德熙《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2002 .
- 강선주 <명청소설에서 본 조동사 “要”의 발전>; 《중국어문학논집》 2007년 43기.
- 김복순 <The Modal Auxiliary System in English,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1.2.
- 김초연 <清代 중국어 조동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9.2.
- 박재승 <조동사 ‘要’의 긍정·부정 형식 간 비대칭 현상 연구>; 《중국어학회》 2011년 58호.
- 최재영 <《老乞大》 조동사 연구>; 《중국어연구》 제85차 중국학연구회 정기 학술발표회 2008.
- _____ <중국어 조동사 연구>; 《중국연구》 2008년 43권.
- 崔宰榮 <試探意願類助動詞和心理動詞的交錯問題>; 《第七屆青年學者國際學術大會論文集》 首爾, 韓國外國語大學BK21事業團, 2011.
- _____ <明清시기 의지류 조동사 연구>; 《중국어연구》 2012년 61집.
- _____, 박미정 <《金瓶梅詞話》 의지류 조동사 考察>; 《중국연구》 2011년 49권.
- _____, _____ <《儿女英雄傳》 의지류 조동사 考察>; 《중국어연구》 2011년 58집.
- _____, 서지은 <‘不要’의 연원 고찰 -양상논리와 『老乞大』 4종 판본의 문법화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연구》 2012년 16호.
- _____, 안연진 <《老乞大》 4종 판본 ‘의지류’ 조동사 考察>; 《중국연구》 2010년 49권.
- _____, _____ <《金瓶梅詞話》 심리동사 연구 —‘의지류·염원류’ 심리동사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2011년 35집.
- 안연진 <明代 중국어 심리동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12.2.
- 褚智歆 <能願動詞肯否不對稱問題分析> 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4.
- 范井玲 <“要”的語法化瑣議>; 《貴州師範大學學報》 2009년 6기.
- 郭昭軍, 尹美子 <助動詞“要”的模態多義性及其制約因素>; 《漢語學習》 2008년 2기.
- 吉田泰謙 <漢語肯定句与否定句不對稱現象的考察> 北京語言文化大學 碩士論文, 2000.5.

- 蔣平〈“要”与“想”及其複合形式、連用現象〉;《語文研究》1983年 2期.
- 蔣文野〈《紅樓夢》中的吳方言探迹——兼談吳方言在《紅樓夢》中的作用〉;《教學与進修》1983年 4期.
- 李明〈漢語表必要的情態詞的兩條主觀化路線〉;《語法研究和探索(十二)》北京, 商務印書館 2003.
- 林綱, 劉晨〈《紅樓夢》方言研究二十年評述〉;《湖南社會科學》2011年 4期.
- 劉有志〈說說虛詞“欲”〉;《古漢語研究》1995年 1期.
- 盧卓群〈助動詞“欲”的發展軌迹〉;《武漢教育學院學報》1996年 5期.
- _____〈助動詞“要”漢代起源說〉;《古漢語研究》1997年 3期.
- 馬貝加〈“要”的語法化〉;《語言研究》2002年 4期.
- 沈新林, 漫話〈《紅樓夢》中的蘇北方言〉;《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1年 3期.
- 王華麗〈能願動詞“要”的主要語法化机制〉;《考試周刊》2009年 10期.
- 王建軍〈《老乞大》和《朴通事》中的顯性祈使句〉;《浙江師範大學學報》2009年 4期.
- 王軒〈“欲”的虛化歷程及其功能用法研究〉;《安慶師範學院學報》2011年 7期.
- 王毅〈《紅樓夢》与江淮方言——兼評“湘方言”說〉;《明清小說研究》2007年 4期.
- 許仰民〈論《金瓶梅》詞話的能願動詞〉;《天中學刊》2005年 1期.
- 相原茂〈漢語助動詞的否定式〉;《面臨新世紀挑戰的現代漢語語法研究》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0.
- 楊璧苑〈四种版本《老乞大》中“待”, “敢”的使用情况的考察〉;《甘肅高師學報》2006年 4期.
- 楊世勤〈古漢語助動詞研究綜述〉;《荷澤學院學報》2007年 6期.
- 余志鴻〈元代漢語的后置詞系統〉;《民族語文》1992年 3期.
- 袁義林〈心理動詞芻議〉;《烟台師範學院學報》1988年 4期.
- 張德歲, 蔣宗霞〈助動詞的非典型性語法功能及其認知解釋〉;《滁州學院學報》, 2006年 5期.
- 張維耿〈助動詞“想”和“要”的區別〉;《語言教學与研究》1982年 7期.
- 張玉萍〈《金瓶梅》方言問題研究綜述〉;《明清小說研究》2003年 4期.
- 周有斌, 邵敬敏〈漢語心理動詞及其句式〉;《語文研究》1993年 3期.
- _____〈漢語詞類划分標準及助動詞的确定〉;《淮北職業技術學院學報》2008年 6期.

【中文提要】

現代漢語助動詞有表示能力的, 如“能、會”; 表示意志的, 如“要”; 表示義

務的, 如“得、要、應該”; 表示推測的, 如“得、要、應該、會”等每个范疇大部分具有几种不同的表現形式。而否定形式不然, 只有一兩個代表形式而已。本文首先對於這些漢語助動詞的肯定形式和否定形式的不對稱現象的前人研究進行考察, 然後對於近代漢語時期(唐代~清代)的8种文獻(《祖堂集》、《敦煌變文》、《朱子語類》、《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宋代卷)》、《新校元刊雜劇三十种》、《原本老乞大》、《金瓶梅詞話》、《紅樓夢》)里出現的意志類助動詞的否定形式(‘不欲, 不要, 不待, 不想’)進行了全面的分析和考察, 揭示它們的使用情況和演變情況, 進而試圖解釋其演變的原因。考察結果如下:

第一、“不欲、不要、不待、不想”的出現頻率如下:

不要(664次/48%) > 不待(251次/18.2%) > 不想(242次/17.5%) > 不欲(225次/16.3%)

第二、“不欲、不要、不待、不想”等都可用作助動詞的否定形式和動詞的否定形式, 但作為助動詞的否定形式使用時所表達的各種意思并非一致, 具體情況如下:

- 表示意志: 不欲、不要、不待、不想
- 表示禁止: 不欲、不要
- 表示不需要: 不待

第三、各時期意志類助動詞的代表否定形式如下:

唐宋	>	元明	>	清
不欲		不待		不想

可見, 唐至清意志類助動詞的代表否定形式不同于現代漢語普通話。在近代漢語時期“不要”雖然可用于表示意志, 但它一直不是代表形式, 這是因為“不要”主要用在表示禁止。

第四, 意志類助動詞肯定形式和否定形式的不對稱現象可用標記理論來解釋。從標記理論的觀點來看, 肯定句、現實句是无標記項, 而否定句、非現實句是有標記項。相對來講, 在這兩種標記項當中有標記項不易理解和習得, 那麼既表示非現實又表示否定的“助動詞的否定形式”難度很高。因此人們為了追求語言交際的明確性在否定句中只使用一兩個代表形式。

【主題語】

近代漢語, 意志類助動詞, 否定形式, 不對稱, 標記理論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

